

1. 밑줄을 바탕으로 <보기>의 ㉠ ~ ㉥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정답 1번

조사 '이/가'를 보았을 때, 주격 조사뿐 만이 아니라 보격 조사도 생각해야 한다.

7에서 조사 '이'는 '아니다'의 호응하는 '인물'에 쓰인 것으로 보아 보격 조사임을 알 수 있다.

<보기>

㉠ 그는 보통 인물이 아니다.  
 ㉡ 철수야, 내일이 무슨 날이니?  
 ㉢ 이번에 성적이 많이도 올랐구나!  
 ㉣ 언니가 동생의 간식을 만들고 있다.  
 ㉤ 백화점에 가서 구두랑 모자랑 샀어요.

[2점]

- ① ㉠의 '이'는 체언인 '인물'에 붙어 주어의 자격을 갖게 한다.
- ② ㉡의 '이니'는 체언인 '날'에 붙어 서술어의 자격을 갖게 한다.
- ③ ㉢의 '도'는 부사인 '많이'에 붙어 특별한 의미를 더해 주는 구실을 한다.
- ④ ㉣의 '의'는 체언인 '동생'에 붙어 관형어의 자격을 갖게 한다.
- ⑤ ㉤의 '랑'은 '구두'와 '모자'를 같은 자격으로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.



**Solution!**

1번.  
 국어에서 '보어'의 개념은 항상 중요하다.  
 보어랑 주어의 개념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,  
 이런 경우에는 주어-보어-서술어 구조의 **홀문장을 서술절을 안은 문장으로 혼동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개념 정리가 필요하다.**  
 주어란, 서술어의 주체가 되는 문장 성분을 말하며  
 보어란, '되다. 아니다'가 필요로 하는 격조사 '이/가'가 뒤에 오는 문장 성분을 말한다.

2,3,4,5번.  
 격조사, 보조사, 접속조사에 대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.  
 격조사와 보조사의 경우 혼동을 하는 학생들이 많은데, 개념을 떠올리면 쉽습니다.  
 격조사의 경우, 자격을 부여하는 조사입니다. 주격 조사, 목적격 조사, 서술격 조사...  
 격 바로 앞에는 주어, 목적어, 서술어... 격조사는 특정 문장 성분 뒤에만 올 수 있습니다.  
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주는 보조사는 특정 문장 성분 뒤라는 위치의 제한이 없습니다.  
 3번 선지의 조사 '도'를 예를 들어 설명해보죠.

내가 너를 좋아해. 이 문장에 주!어 자리에 주!격조사 '가'가, 목적!어 자리에 목적!격 조사 '를'이 쓰였죠?  
 격조사는 특정 문장 성분 뒤에만 오기 때문에, 이 조사 둘을 바꾸면 문장이  
 너가 나를 좋아해. 로 변하게 됩니다. 문장 성분이 바뀌기 때문이죠.  
 그렇다면, 위 문장에 보조사 '도'를 넣어볼게요. 이 친구는 위치에 제약이 없어요.  
 그래서, 격조사와 달리 주어 자리에 붙여도, 목적어 자리에 붙여도 문장 성분은 그대로입니다.  
 나도 너를 좋아해. / 내가 너도 좋아해. 가 되니까요. 보조사는 의미를 더할 뿐입니다.

접속조사의 경우, 영어로 치면, and라는 의미로 쓰이며, 두 대상을 같은 자격(=문장 성분)으로 이어준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. 철수와 영희는 집에 간다. 라고 하면 접속 조사 '와'는 철수 and 영희를 주어로 만들어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. 여기서 조심! 철수는 영희와 닮았다. 라고 하면 여기서 조사 '와'는 닮다의 필수적 부사어의 자격을 주는, 비교 부사격 조사 '와'라는 것을 알고, 접속조사 '와'와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.